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2. 6. 3.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,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 '22.6.3.>

1.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

◈ **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**

-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·후 2회 유지

  * (입국 전)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, (입국 후)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

-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

-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 확인 철저, 검역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신종 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추진

*** (기존) 접종자 격리면제, 미접종자 격리 의무(7일)**

- 6.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.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, 입국검사 결과 '양성'으로 확인된 경우, 격리 조치 된다.

-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,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,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(비용은 자부담)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

- 또한,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,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,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

출처: http://ncov.mohw.go.kr/tcmBoardView.do?contSeq=371691#

붙임1 | **Q-code(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) 개요**

□ Q-code(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)(3.21~)

○ (목적)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, QR스캔을 통한 검역실시 → 검역소요시간 단축 및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

○ (내용) △개인정보(여권번호 등), △입국 및 체류 정보(출발국, 항공편, 국내 체류지, 연락처 등), △검역 관련 정보 등 입력 후 QR 발급(또는 인쇄)

* Q-code 접속 주소 : https://cov19ent.kdca.go.kr

< 검역관련 정보 간소화 내용 >

구분	기존	변경(6.8일~)
① 입국 전 검사(PCR 등) 정보	○	○
② 예방접종 정보	○	×
③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	○	×
④ '건강상태질문서' 정보	○	○



붙임2 **해외입국체계 개편 관련 주요질의답변**

1.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변이바이러스 유입 관리 방안?

○ **입국 단계**에서 **유증상자** 및 **의심자**에 대해 **철저한 검역**과 **입국 후 검사** 등 **변이 유입 감시체계의 마련** 등으로 **신종변이에 대응할 예정**

- 또한,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하여,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

2. 現 Q-code 이용율 현황 및 Q-code 이용율 제고를 위한 질병청의 계획은?

○ 현재 **전체의 약 60% 수준의 입국자**가 Q-code**를 이용**하고 있으며,

○ 항공사 및 여행사와 해외입국자에게 **Q-code 사용매뉴얼 등 안내문 배포**, 공항 내 **지원인력 배치**, 출입국자 대상 **Q-code 이용 안내 문자(SMS) 발송 등**을 통해 **Q-code 이용을 지속적**으로 **유도**할 예정임

3. 6.8일 전에 입국하여 격리 중인 입국자도 격리가 해제되는지?

○ 6.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라도 **6.8일부로** 해외입국자 **격리가 전부 해제**(소급적용 가능)

○ 다만, **입국검사 결과 '양성'으로 확인**된 경우, **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**조치